

언어학에 있어서 플라톤 문제

양 우 진*

I

The study of language has a long and rich history, extending over thousands of years. This study has frequently been understood as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mind and thought on the assumption that "languages are the best mirror of the human mind" (Leibniz).¹⁾

현대 과학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어문제이다. 언어문제는 고대철학에서도 논의 되었으나 그것이 과학의 대상으로서 본격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언어를 연구하는데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점이다. 학문의 연구는 분석을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모든 학문은 인간에게 귀착시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내재적 정신을 주로 연구하는 것이 고대부터 철학이라 했다. New Realism을 거치며 철학자들은 인간마음을 분석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 여기게 되어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분석철학이다. 분석철학은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Carnap을 중심으로 하는 논리적 경험론자들 같이 과학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철학이 있고, 캠브릿지학과 나 옥스포드학과 같이 일상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철학이 있다.

이들은 왜 연구대상을 언어로 했는가는 Leibniz의 말처럼 "언어는 인간 마음을 나타내는 최상의 거울"이고 또한 언어는 사상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간을 연구 할려면 언어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귀착시킬 수 밖에 없고,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언어학은 현대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These devices may includ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genius that affect the "character" of a language, enriching its means of expression and the thoughts expressed without affecting its "form," its sound system and rules of word and sentence formation (Humboldt).²⁾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 Chomsky, N.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6), p.1.

2) Ibid., p.2.

인간의 내재적 실체를 연구하는 것은 Platon, 이후 Humboldt로 이어 지면서 언어연구에서 그 실체를 찾으려고 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도 제일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 언어이고 이는 또한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인 것이다. 복잡하게 얼키고 설키었으며 수백종의 다양한 언어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각기 다른 언어표현, 그러나 그 많은 언어들 이 Principle와 Rule에 의하여 절서정연한 틀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연구는 Rationalism에 입각한 연구를 가능하게 되었는데 Universal Grammar에로의 발전을 가져왔고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만들어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철학, 전산학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현대학문의 연구방법인 Structuralism은 언어 학자인 Saussure에게서 시작되었고 Rationalism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것은 Chomsky이며 Functionalism을 학문 연구 방법으로 시도한 것은 Jakobson이다. 현대 학문 연구방법은 주로 구조주의, 기능주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언어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처음 시도했던 사람도 전부 언어학자인 것이다.

The study of generative grammar represented a significant shift of focus in the approach to problems of language. Put in from behavior or the products of behavior to states of the mind/brain that enter into behavior. If one chooses to focus attention on this latter topic, the central concern becomes knowledge of language : its nature, origins, and use.

The three basic questions that arise, then, are the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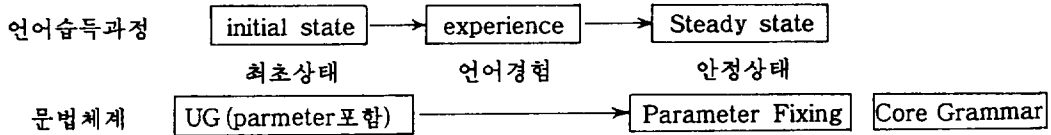
- (I) What constitutes knowledge of language?
- (II) How is knowledge of language acquired?
- (III) How is knowledge of language put to use?"

생성문법은 Language를 연구하지 않고, 언어능력, 문법능력(Linguistic Competence Grammatical Competence(Language faculty)을 연구, 규명한다. 언어능력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따라서 생성문법은 인간본성(human nature)을 해명하려는 인식과학(Cognitive Science)이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허구(artifact)이며 언어능력은 실체(Reality)이다. 언어=Grammatical Competence+other systems+기분상태, 발생기관, 청자, 연령, 계층등.....

인간의 언어 능력인 실체를 연구하는 것이 Universal Grammar이며 이를 내재적 언어(Internalized language, I-language)라 하며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외재적 언어(Externalized language, E-language)라고 한다.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이 생성 문법 이론을 반영한다.

3) Ibid., p.3.

$$S_0, S_1, S_2, \dots, S_n$$


Core Grammar + Periphery (주변적요소 : 사투리, 잘못쓰는 말
(Idiocyncracies = Actual Speech)

Universal Grammar + Parameter = Core Grammar, core Grammar 연구는 즉 Universal Grammar 연구인데 영어의 Core Grammar, 국어의 Core Grammar을 연구하는 것이 Universal Grammar을 연구하는 것이 된다.

언어연구에는 3가지 점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Origin, Nature, Use인데 Origin은 언어 습득 능력으로 Initial state of language faculty (=S₀) → linguistic experience → Final state of language faculty (=S_n) (1-lg) nature은 언어 능력으로 Universal Grammar → Parameter setting + vocabulary Acquisition → Core Grammar (=1-language) Use는 1-language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를 말하는 것으로 1-lg + Pragmatic competence + other Cognitive capacities = E-language (기억력, 주의집중력, 상상력 등 실제 발화)

언어학 연구는 E-language를 연구하지 않고 1-language를 연구해야 진정한 연구가 되는 것이다.

A child learning English must, of course, learn the meaning of the word *persuade* including its properties of s-selection and must also learn the value of the head-complement parameter for English (head-first) and the specific properties of Case assignment in English (the fact that the Case adjacency principle is invoked, presumably a reflex of the poverty of the morphological Case system).⁴⁾

언어를 습득하는데 즉 언어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① The properties of S-Selection ② The head-complement parameter ③ The specific properties of case assignment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S-Selection에 의한 C-Selection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휘 특성을 알아야 하고, 제일 Universal하다고 할 수 있다.

4) Ibid., p.88.

Language poses in a sharp and clear form what has sometimes been called "Plato's problem," the problem of "poverty of stimulus," of accounting for the richness, complexity, and specificity of shared knowledge,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data available. This difference of perception concerning where the problem lies — overlearning or poverty of evidence — reflects very clearly the effect of the shift of focus that inaugurated the study of generative grammar.⁵⁾

진정한 언어연구는 단순히 자극에 의한 언어생성, 자료의 수집, 논리적 또는 수리적 기호체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생득적 언어능력을 연구하는 Platon적 철학에 바탕을 둔 실험적 원리를 찾아내어 뇌생리학이 뇌라는 인체조직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듯, 언어기능이라는 정신조직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Universal Grammar에의 접근, 실험적 원리에 입각한 연구가 진정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II

Let us begin with some questions concerning X-bar theory. Assume a distinction between lexical and nonlexical categories, where the lexical categories are based on the features $[\pm N, \pm V]$, yielding the categories Noun $([+N, -V])$, Verb $([-N, +V])$, Adjective $([+N, +V])$, and Postposition $([-N, -V])$. The nonlexical categories include complementizer and INFL, the latter including Tense and Agreement elements and Modals. Assume that other categories are projections of these zero-level categories in terms of the following schemata (order parametrized; the choices here are for English, the convention I shall adopt throughout), where X^* stands for zero or more occurrences of some maximal projection and $X=X^{0,1}$:⁶⁾

언어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 Plato's problem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간은 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 말하는 최소 단위의 의미포시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상을 주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술부라고 했다. GB에서는 주부를 $[+N]$ 술부를 $[+V]$ 라 하여 $[+N][+V]=\text{Adjective}$, $[-N][-V]=\text{Preposition}$, $[+N][-V]=\text{Noun}$, $[-N][+V]=\text{Verb}$ 라 하여 4개의 어휘범주를 설정하고 COMP와 INFL 두 개를 비어휘범주로 설정하여 6개의 범주로 나누어 언어의 기본골격을 설명하고 있다.

논리학에서도 주부와 술부를 나누어 언어의 기본 골격을 설명했는데 이를 명제라 해서 인간이

5) Ibid., p.7.

6) Chomsky, N. *Barriers* (Cambridge : MIT Press, 1986), p.2.

표현하는 기본적인 최소단위인 의미표시로 나타내었다.

- ① Will John leave the room (question)
- ② John will leave the room (assertion about the Future)
- ③ John, leave the room (request, order)
- ④ Would that John left the room (wish)
- ⑤ if john will leave the room, I will leave also (hypothetical expression of intention)

여섯개의 문장의 명제는 John will leave the room인 것이다. 즉 인간사고의 기본틀은 주어와 술어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성문법에서는 주부 (+N) 술부(+V) 두개의 기본 범주를 수학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V)(-N), ((+V), [+n]) ((-V), [+N]), ((-V), [-N]) 4개의 어휘범주를 설정하여 문법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4개의 어휘범주와 2개의 비어휘범주는 plato's pblem으로써 Universal Grammar인 것이다.

각 범주는 핵(head)과 보충어(Compbement)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똑 같은 선천적인 언어적 소질인 Universal grammar의 문법적 능력을 갖고 태어 나는데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Core Grammar의 문법적 능력을 갖게 된다.

국어와 영어를 볼 때 Universal Grammar는 똑 같은 Plato's pblem인데 Parameter가 가미되어 영어는 head-first, 한국어는 head-last로 되어 Core Grammar가 형성되는 것이다.

영어는 head-first의 Parameter를 택하므로 동사나 전치사가 그 목적어 앞에 오고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언어는 head-last의 Parameter를 택하므로 동사나 후치사가 그 목적어 뒤에 온다고 본다.

그러나 head-first의 Parameter를 택하는 언어든 head-final의 Parameter를 택하는 언어든 다 같이 핵과 그 보충어가 Lexical Projection 범주를 구성한다는 X-theory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Universal Grammar의 테두리 안에서 규명, 설명되고 있다.

- a. I wonder who [The men expected to see them]
- b. [The men expected to see them]

㉠ ㉡ 두 문장을 볼 때 괄호안 them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문장 괄호안에 있는 them은 the men을 지칭하지만 ㉡문장에서 them은 the me을 지칭하지 않는다. ㉠ ㉡ 괄호안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미국의 어린이들은 이를 쉽게 구분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고 언어적 경험이 없을 지라도 쉽게 알아 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이와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통문법이나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을 설명할 길이 없다.

Traditional and structuralist grammar did not deal with the questions of (1), the former

because of its implicit reliance on the unanalyzed intelligence of the reader, the latter because of its narrowness of scope, the concerns of traditional and generative grammar are, in a certain sense, complementary: a good traditional or pedagogical grammar provides a full list of exceptions (irregular verbs, etc.), paradigms and examples of regular constructions, and observations at various levels of detail and generality about the form and meaning of expressions.⁷⁾

과거문법 연구는 언어 표현의 의미나 형태에 입각한 규칙구조, 여러 계층에서 관찰된 형태, 불규칙 예외 규정의 나열 등 외형적인 표현 자체에 중점을 두어 연구했기 때문에 ㉠ ㉡ 문장과 같은 표현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즉 언어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 언어능력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생성문법에서는 언어자체보다 언어능력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 문장은 Universal Grammar인 Binding theory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I is *BT-compatible* with (α, β) if :

- (A) α is an anaphor and is bound in β under I
- (B) α is a pronominal and is free in β under I
- (C) α is an r-expression and is free in β under I⁸⁾

수정된 Binding theory B는 대명사의 결속에 관한 것이다. 대명사류는 그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는다. 대명사류의 지배 범주는 그 대명사류의 지배자를 내포하는 최소 완전 기능 구조로서 결속 이론상 적합해야 한다.

"Binding" is defined as follows :

- (15) A binds B iff
 - (i) A c-commandns B
 - and (ii) A and B are coindexed.⁹⁾

A가 B를 결속한다는 것은 A가 B를 C-Command하여야 하고 A와 B가 서로 Coindex 하여야 한다. 이상의 Binding theory B에 입각해서 ㉠ ㉡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 문장의 D-structure는 The men expected who to see them이므로 Them은 who to see them에서 결속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선행사로 The men을 취할 수 있으므로 The Men과 them이 같은 지표(index)를 갖어 them이 선행사는 the men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보면

7) Chomsky, N.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6), p.6.

8) Ibid., p.171.

9) Howard Lasnik and Iuan Uriagereka. *A course in GB syntax* (Cambridge : MIT press, 1988), p.33.

The men expected PRO to see them이므로 PRO의 선행사는 the men이다. 만약 them의 선행사가 The men이라고 한다면 PRO와 them은 C-command가 되고 Coindex되므로 PRO와 the men은 binding이 되어 Binding theory B을 어기는 것이 되어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them의 선행사는 the men이 될 수 없다.

- a. John ate an apple
- b. John ate
- c.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Bill
- d.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㉑와 ㉒을 볼때 ate, talk to는 목적어가 와야 하는 자리인데 목적어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㉑는 어떤 임의의 목적어가 생략 된것으로 볼 수 있지만 ㉒는 John이 목적어로 와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험적 학습방법에 의한 유추에 의해서 모국인이 알아 내었다고 볼 수 없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득적 “언어기능”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㉑는 John is so stubborn that some arbitrary person won't talk to him (John) ㉒는 John is so stubborn that he (John) will not talk to some arbitrary person.

㉑ ㉒ 문장에서 to talk의 의미상 주어는 각각 다르다. 왜 다른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할려면 Universal Grammar에 의한 생득적 언어의 원리를 찾아 연구를 해야 한다.

c', John is too stubborn [COMP(e_i to talk to Bill)]

d', John is too stubborn [O [_se_i to talk+o e_j]]

(c') (d')에서 e_i는 지배받고 있지 않으므로 PRO이다. O(Operator)는 empty이고 COMP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PRO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Universal Grammar의 원리로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e_j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e_j는 to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으므로 case-marking position에 있고 또한 θ -Position에 있다. 그러므로 variable이다.

Variable이므로 \bar{A} -Chain이 되어야 한다. Variable e_j는 COMP에 있는 O에 의하여 chain이 되어 \bar{A} -bound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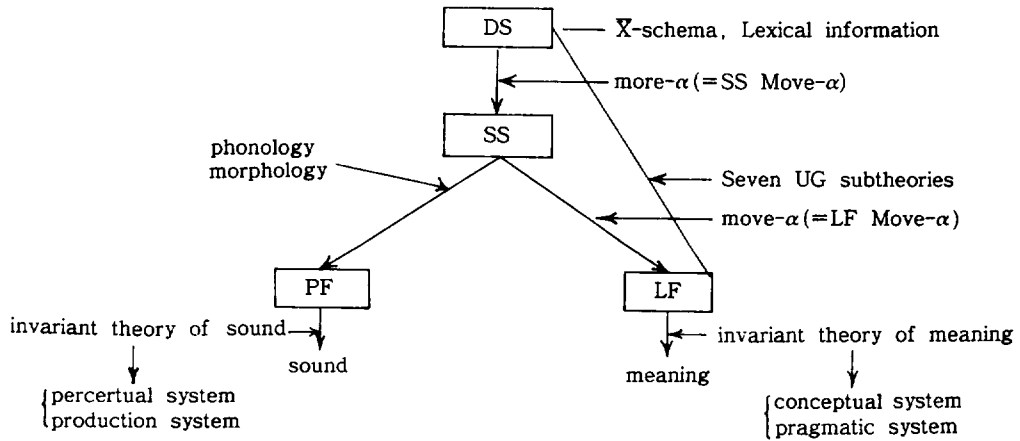
Bijection principle에 의하여 Operator는 하나의 variable을 bind하여야 하므로 e_j를 bind하게 되고 PRO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주문장의 주어인 John에 의하여 control되고 있다. 그러므로 e_j는 John이다.

(d')에서 e_i는 PRO인데 만약 John에 의하여 Control 된다면 Binding theory C에 위배되어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an arbitrary person 일 수 밖에 없다.

(c')에서 e_i는 주절의 John에서 control되므로 John이다.

- a. who did you believe would win.
- b. *who did you believe that would win.
- c. The thing that happened is terrible.

Universal Grammar에서 D-structure과 move- α 규칙의 설정은 생성문법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D-structure에서 LF, PF까지는 우리의 mind/brain 문제로 Universal Grammar의 일반 원리로 언어를 다루어야 한다. Sound와 Meaning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move- α 문제는 UG의 7가지 Subtheory와 연관을 지어 연구해야 하는데 과거 영문법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TRACE MOVEMENT PRINCIPLE

Any moved constituent X^n leaves behind at its extraction-site an identical empty category [$X^n e$]. This empty category is known as a *trace*, and the moved constituent is said to be the *antecedent* to the trace¹⁰⁾

More- α 에 의해서 trace가 생기는 데 이는 Zero element로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원리에 의하여 그 실체가 규명되고 있는 것이다.

- (I) trace is governed
- (II) the antecedent of trace is not in a θ -position
- (III) the antecedent-trace relation satisfies the subjacency condition

10) Radford, A.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555.

PRO lacks all of these properties : it is ungoverned: its antecedent (if there is one) has an independent θ -role, as does PRO; the antecedent-PRO relation (where PRO has an antecedent) need not satisfy the subjacency condition. Furthermore, PRO need have no antecedent, while trace always has an antecedent :¹¹⁾

과거 생성문법 연구는 T-Rule을 주된 연구로 했으나 GB theory에서는 그 복잡한 T-Rule을 상기 3가지 원리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㉔ ㉕ ㉖의 문장에서 ㉔ ㉕는 문법적인 문장인데 ㉖는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과거문법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GB에서는 어떻게 Universal Grammar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a') who did you believe [t' [e [t would win]]]

(b') who did you believe [t' [that(t would win)]]

(c') The thing that t hapyned is terrible

㉖에서는 t가 that에 의해서 선행사 지배 받는 것이 방해되고 있는데 이는 Minimality condition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㉔는 만약 e가 featureless하다면 t는 선행사 지배를 받아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㉕에서 t는 that에 의해서 선행사 지배받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데 문법적인 문장이다.

An outstanding problem for the proposed anlysis of the that t effect is raised by the general acceptability of subject relative clauses introduced by that :¹²⁾

That t effect에서 문장이 주어로 되었을 때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㉔ *A man who [t looks old [whenever I met e]]

㉕ A man who [whenever I meet e] [t looks old]

㉖ *Alex, who [friends of t) admire Bill, ……

㉗ Alex, who [friends of t] admire t, ……

GB theory에서는 4개의 Empty category를 설정하고 있다. trace, variable은 move- α 에 의해서 생긴 요소로 지배를 받아야 하고 PRO는 base-generated element로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pro는 pro-drop language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그러나 GB theory에서는 이 요소들을 연구, 분석하여 하나의 원리를 찾아 내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㉔ ㉕ 문장을 분석하면 t는 trace로서 real gap이고 e는 parasitic gap이다.

11)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 Foris Publications, 1982), p.56.

12) Rizzi, L.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 MIT Press, 1989), p.59.

The descriptive generalization now reads as follows: "A parasitic gap is licensed by an S-Structure wh-trace that does not c-command it."¹³

㉔에서 parasitic gap e는 wh-trace인 t에 의하여 c-command되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인데 ㉕에서 parasitic gap e는 wh-trace t에 의하여 c-command되지 않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㉔ ㉕ 문장을 분석하면

(d) [_{CP}who_jCOMP[_{IP}t_j[_{NP} friends of t₂]] INFL [_{vp}t₃ admire t₄]])

primary chain (who_j, t₁, t₃, t₄)

parasitic chain (who_j, t₁, t₂)

(d) 문장을 보면 같은 operator에 의하여 이끄는 두개의 wh-chains가 있고 각 chain은 Local binding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t₁는 t₂와 t₃를 binding 하고 있는데 t₂와 t₃는 서로 c-command하고 있지 않다.

Chomsky는 1P에 Adjunction이 첨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1P에 Adjunction이 첨가된다는 점이다.

John Frampton은 Chomsky 이론에 수정을 제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1P에 Adjunction 첨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I will propose that adjunction of a wh-element to a maximal projection can only take place from a position that is canonically governed by the head of that maximal projection!¹⁴

사실 (c) (d) 문장을 분석해 보면 1P에 Adjunction 부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P에 Adjunction 부착은 wh-phrase만이 가능한데 그와같은 전제하에서 (d)문장은 1-subjacency 조건을 만족시켜 barrier가 없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c) 문장을 분석하여 보면

[_{CP}who_j COMP [_{IP}t_j[_{NP} friends of t₂]]
INFL (admire Bill)]])

㉔문장은 문법적인데 왜 ㉕의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인가? ㉔문장에서 t₃은 t₁을 licence하며 또한 INFL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1P에 adjunction이 부착되는 것이 li-

13) Howard Lasnik and Iuan Uriagereka. *A course in GB syntax* (Cambridge : MIT Press, 1988), p.75.

14) Frampton, J. (winter, 1990) *Parasitic gaps and the Theory of wh-chains*, *Linguistic Inquiry* 21, p.50.

cence 된다. 그러나 ㉔문장에서는 INFL은 t2을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NP가 Barrier이기 때문이다.

㉔㉕㉖㉗ 문장을 보면 과거 전통문법이나 구조주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고 오직 Plato's problem에 의한 Universal Grammar에 입각한 GB theory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GB theory는 과거 학교문법이나 구조주의 이론처럼 흑백 논리로 완전히 무시하여 전개시킨 이론이 아니다. Universal Grammar→experience→Core Grammar→Pheriphery→Actual speech로 언어 습득과정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까지 언어연구는 Actual speech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GB theory는 Core Grammar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Universal한 이론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이론보다 한발자 앞선 것이므로 과거 이론을 백지화 하여야 한다고 Chomsky는 주장하고 있지 않고 수정, 보완하고 연구방법을 다르게 한 것이므로 과거 이론도 학교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거 문법에서 부사의 분류는 ① 형태적인 특색 ② 뜻 ③ 문법적 기능 등으로 구분하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등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GB theory에서는 이에 첨가하여 θ -theory, projection principle, x-bar theory 등 Universal Grammar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Pauid Pesetsky의 말을 인용하면

As is known from the work of Jackendoff and others, there are severe restrictions on the occurrence of adverbs of completion, adverbs of completion can only attach to the X' that they modify¹⁵⁾

부사의 위치에 있어서 과거 문법에서 보면 주로

- a. adv+S
- b. S+adv+V
- c. S+Auv+adv+V
- d. V+adv+O
- e. S+adv

등 대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adv+adj) (adv+adv) (Aux+v+adv) (to+adv+V) (adv+to+V) 등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위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막연한 감각적인 차원에서 즉 Actual speech의 견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학 이론에서는 좀 다르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다.

- a. The boat was sunk e
- b. The boat sunk

15) Pesetsky, D. (1989) *Language-Particular and the Earliness Principle*, ms. MIT, p.32.

위 두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데 부사 voluntarily을 첨가하면

a'. The boat was sunk voluntarily.

b'. The boat sank voluntarily

(a') (b') 두 문장에서 (a')는 문법적인 문장인데 (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와같은 설명은 과거 문법이론으로 설명이 힘들다. 즉 (b) 문장은 eargative verb로 (a) (b)는 뜻이 같다. 그러나 문법적인 기능이 다르다.

(a) 문장과 ㉑ 문장에 by john을 넣으면

The boat was sunk by John.

*The boat sunk by John.

으로 되서 ㉑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인데 ㉒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㉑ 문장은 Agent가 empty Category로 되어 존재하고 있으나 ㉒ 문장은 Agent가 없다. 그러므로 voluntarily는 Agent를 수식해야 하는데 ㉑ 문장에는 Agent가 존재하므로 문법적인 문장이고 ㉒문장은 Agent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㉑ It is impossible [PRO to be visited together]

㉒ *It is impossible [for me to be visited together]

㉑㉒ 두문장에서도 ㉑는 문법적인 문장인데 ㉒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것도 ㉑에서 PRO는 복수이고 ㉒에서 me는 단수이므로 together를 썼기 때문에 ㉒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즉 voluntarily와 together는 subject-oriented adverb이므로 Agent 또는 subject가 문중에 있고 그것과 θ -Role과 Projection principle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① ㉑ Bill has completely finished his meal

㉒ *Bill completely has finished his meal

㉓ *Completely, Bill must have finished his meal

② ㉑ Bill has cleverly finished his meal

㉒ Bill cleverly has finished his meal

㉓ Cleverly, Bill has finished his meal

adverb of completion은 그들이 수식하는 X'에만 가능하므로 ① ㉒㉓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Cleverly는 subject-oriented Adverb 이므로 ② ㉑㉒㉓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adverb of completion이라고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would not ("refuse")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 사이에 adverb of completion을 쓸 수 있다.

㉑ There is a man in the room.

㉒ There are men in the room.

㉓ A man is in the room.

There는 과거에는 부사로서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 약한 be 동사등과 같이 써서 명사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there는 명사로서 it 등과 같이 expletive이다.

㉔ 문장의 적절한 논리형태는 ㉒문에서 there가 Affect- α 로 삭제되고 그 자리에 a man이 이동되어 ㉓문장이 된다. there가 Affect- α 로 삭제되는 것은 There가 expletive이므로 의미가 없어서 deletion constraint을 어기지 않는다. A man이 there가 있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Argument chain Condition을 만족시킨다.

A man_i is t_i in the room

A man과 t는 논항 연쇄를 형성하고 is는 어휘 요소 연쇄를 형성하고 in the room은 부가어 연쇄를 형성하여 ㉓는 ㉒에서 도출된 허가된 논리 형태이다.

허사 there에 대해서 Chomsky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The expletive there has three salient properties. First, an NP must appear in a certain formal relation to there in the construction; let us call this element the associate of the expletive, and take the expletive to be licensed by its presence. Second, number agreement is not with there but rather with the associate. Third, there is an alternate form with the associate actually in the subject position after overt raising.¹⁶⁾

existential be는 일종의 unaccusative verb로서 complement에게 θ -Role은 주면서 case는 주지 않는다. A man은 case position으로 이동이 되거나 case position에 있는 NP와 chain을 형성하여 case을 받아야 한다. ㉒ ㉓ 문장은 완전 해석 원리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expletive는 LF-Affix이다.

There는 phi-feature가 결여되고 있으므로 a man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즉 a man은 INFL과 chain이 되고 There도 INFL과 chain이 되므로 a man은 There와 chain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There는 완전 해석 원리가 요구하는 LF-Affix로 clitic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There와 a man이 LF-Adjunction은 NP를 형성하는 복합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_{NP}there-[_{NP}a\ man]]$.

There는 NP을 갖어야 하는데 허사인 it는 다음에 clause을 갖는다.

(a) The gift to john of a book.

(a') The gift of a book to john

(a'') *The gift of john a book.

(b) gifts from john and Bill to themselves/each other

(b') *gifts from themselves/each other to John and Bill

(c) gifts to john and Bill from themselves/each other

(c') *gifts to themselves/each other from John and Bill.

위 ㉒㉓㉔ 문장들은 give라는 동사에서 nominalization된 것이다. 그리고 doubl PP인 것이다.

16) Chomsky, N. (1988)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s, MIT. p.22.

㉔ 문장은 give john a book에서 give가 명사화 되므로 john이나 book에게 격을 줄 수 없으므로 to, of 전치사를 삽입하여 john과 book에 격을 부여하여 문법적인 문장인데 (a'')는 book에게 격을 줄 수 없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이다.

동사에서 nominalization이 되더라도 동사의 특성은 갖고 있으므로 complement는 그대로 취하게 되는 것이다. 동사의 성격상 2개의 목적어, double PP complement 등 double complement을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는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The cases of double complements I will look at are listed in (11).

- (11) a. Nonalternating double objects (*deny, cost*)
 b. Alternating NP-PP complements (*blame X on Y/blame Y for X; load X on Y/load Y with X*)
 c. Double PP complements with free order (*talk to X about Y/talk about Y to X; hear from X about Y/hear about Y from X*)
 d. Double PP complements in nominals (*a gift from X to Y/a gift to Y from X*)¹⁷⁾

(b) (b') (c) (c')는 명사로서 그 중 PP를 보어로 취하는 예이다. (b) (b') (c) (c')에서 (b) (c')가 비문법적인 문장인 것은 binding theory를 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double complement 문장에서 (a) (a') (a'') 문장처럼 binding theory에 관계없는 문장은 NP에 격부여만 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a) (b) (c) 문장을 분석 하는데는 Universal Grammar의 일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여 명쾌하게 분석/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Ⅲ)

진정한 언어 연구는 생득적인 언어능력 즉 1-language을 연구하는 것이다. 문법능력은 우리 인간은 유전학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데 언어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탐구이다. 인간 탐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chomsky가 말하는 소위 플라톤의 문제(Plato's problem)이다. 즉 어찌하여 인간은 그렇게 조금 경험해 보기도 그렇게 많은 정신적 기능이나 지식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인간이 실제 경험한 것 이상으로 갖게 되는 기능과 지식은 지금까지 철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시적이며, 실증적(positivism) 방법으로 수학적 체계성을 갖는 이론 제시를 하지 못했다.

오늘날 생성문법, 특히 지배-결속이론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이 문제를 명쾌히 해결하고 구체

17) Jackendoff, R. (summer, 1990) *On Larson's Treatment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21, p.430.

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탐구의 지름길은 언어 연구이기 때문이다. 언어연구 자체가 인간 연구인 것이다. 인간탐구를 위한 여러가지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중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비교적 구하기도 조정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문제로서 "so little experience, but so mach language". 왜 모국어 습득에 경험을 해보지 않고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선천적으로 인간이 언어능력을 타고 났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언어연구는 언어능력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Universal Grammar에 입각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개의 예문을 Universal Grammar에 입각하여 분석했는데 과거 문법이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과거부터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육체는 과학적으로 분석, 설명하여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정신분야 연구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지배-결속이론 연구로 정신문제를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성있게 연구하여 인식과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지배-결속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 언어학은 플라톤의 문제,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문예운동, 사상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신 중심의 중세문화로 부터 인간 중심의 근대문화로 전환하는 인본주의 등 인간 본성 연구 방향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언어학은 물론이고, 심리학, 철학, 전산과학, 뇌생리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본성 연구 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여겨진다.

Summary

Plato's Problem in linguistics

Yang, Woo-jin

Languages are the best mirror of the human mind. Knowing the language is a property of a person; on task of the brain science is to determine what it is about a person's brain by virtue of which this property holds.

Chomsky suggested that for a person to know the language is for the person's mind/brain to be in a certain state.

The language faculty is a distinct system of common to the species. This faculty passes from the state S_0 to some relatively stable steady states S_s . UG is the theory of S_0 and CG is the theory of S_s ; particular grammars are theories of various I-language.

All the devices of language are meager enough so that very few languages are made available to the language-learner, given data that, in fact, suffice for language acquisition.

These conditions of the variant of Plato's problem set the important task that the research program must address.

Two perspectives can be distinguished in the study of grammar, one which emphasized rule system and the other, systems of principles. There has been a gradual shift of focus from the study of rule systems, which has increasingly been regarded as impoverished, to the study of systems of principles, which appear to occupy a much more central position in determining the character and variety of human language.

In long run, I believe Chomsky's greatest contribution will be that he has taken a major step toward restoring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the dignity and uniqueness of man.